

I 한일교류학습의 목적과 형태

1. 주변국의 말과 문화를 배우자- 한일교류학습이란



일본과 한국은 거리적으로도 언어문화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그 역사적 경위로 인해 양국 사이에는 현재도 역시 함께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 오랫동안 「가깝고 먼 나라」라고 말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경우, 대중매체의 보도나 자국중심의 교육에서 형성된 이미지에 따라 생겨나 버린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됩니다. 이제부터의 한일의 미래를 만들어갈 젊은이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눈과 마음으로 사실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스스로 판단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람과의 상호접촉을 통해 배우는 「교류학습」은, 스스로의 체험을 기초로 주체적으로 사물을 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인식을 촉진하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가능성을 갖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일의 경제적 인적 교류가 깊어짐에 따라, 학교교육현장에서도 자매학교를 중심으로, 수학여행이나 연수여행 등으로 교류를 행하고 있는 학교의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한일 학생들 사이의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큰 찬스가 될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교류를 하고 싶어도 자매학교가 없다, 구체적인 교류 방법을 모른다 라는 이유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선생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는 그러한 선생님을 위해 한일교류학습의 사례를 소개하고, 교류학습으로 가는 입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다루어지는 한일교류학습을 「말과 문화를 배운다」는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고등학생과 일본의 고등학생이 일본 및 한국의 언어문화를 배울 때의 서로의 학습을 도와주는 교류학습이 나아가야 할 방법을 고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일의 진정한 상호이해를 목표로 한다면, 한일쌍방이 서로의 언어문화를 배운다고 하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많은 한국의 고등학교에서는 제2외국어로서 일본어를 배우고 있지만, 일본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고등학교는 드물고, 현재의 상태는 상당히 균형이 이루어져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교육제도에 제2외국어교육이 잘 자리잡고 있지 않은 것이 그 원인으로, 그 근본적인 해결은 쉬운 것은 아니지만, 현재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서 착실히 그 교육의 의의 및 성과를 보여주고 나가, 다음 단계로에의 도약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본 사이트가 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한국어와 일본어 수업 에서 교류학습을 다룬 사례이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한국어 수업이 없는 일본 학생과 일본어 수업이 있는 한국 학생과의 교류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학교간 교류에서는 필요에 따라 영어를 공통언어로 하고, 한일 문화를 소재로 하면서 일본어와 한국어를 조금씩 다루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본 사이트에서 소개하는 수업 사례가 그와 같은 교류학습의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일조가 된다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학교교육현장에 있어서의 한일교류는 이제까지의 사회과 교육, 이문화간교육의 분야에서 실천이 거듭되어 발전해 왔습니다. 일본어나 한국어 교육현장에 있어서의 아직 그 실천보고가 많지


않지만, 발전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그리고 일본의 현행 학습지도요령의 외국어과목에서는 「살아있는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문화이해」, 「학습자지향 학습자 참가형의 활동」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화이해 태도를 육성하는 것이 중시되어져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서 소개할 한일교류학습은 한일의 학생들이 서로가 각각의 생활에 대해 「발신」과 「수신」이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 상호 학습을 서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한일교류학습의 의의

한일교류학습에 참가한 학생들의 목소리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다지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들었는데, 한국인에 대해 알고 하고 있는 것이 대단하다. 

-재미있게 교류했기 때문에, 대화를 하거나 한글을 쓰거나 하는 것이 이전보다 잘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친구도 열심히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절대 지지 않고 한국어 공부를 해야만 해」라고 용기를 갖게 되고 대단히 자극을 받았다. 

-모르는 것을 모두 알려주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는 친절함에 감동했다. 

2008년도에 교류 학습을 경험한 다카하시 히로시미씨에게 인터뷰 했습니다.

(일본어)

Q 高校生のとき、韓国語を勉強したのはどんな理由からですか。

A 韓国語に興味を持った最初のきっかけは冬のソナタを見たことです。韓国ドラマにはまり、東方神起にはまり、東方神起5人が全く分からなかったという日本語をスラスラ話しているのを見て、刺激を受けました。韓国で東方神起が出演した番組を見て、彼らが言っていることを聞き取れるようになりたいと思いました。それで私も韓国語を勉強しようと思いました。

Q 韓国の生徒との交流学习はどうでしたか。

A 韓国の人と関わることは初めてでした。顔も知らないし授業を通して知り合っただけなのに、文化や習慣の違いを学び、ビデオレターや文通をしたり…文通の返事が来るのがとても楽しみでした。同じ高校生に教えてもらったことで、日本と同じことや違うことなど様々なことに興味を持ちました。毎回の授業がとても楽しみで、時間が経つのがあっという間でした。

Q どんな活動が印象に残っていますか。

A 文通したことや、自分の生活や食べ物、鞆の中を画用紙にまとめて書いて交換したことがとても印象的です。家に帰ったら昼寝をしてパソコンをして、漫画を読んで…自分の生活とあまり変わらないので安心しました。韓国の高校生は大学受験まで勉強一筋だと思っていたので。

Q 卒業後も韓国語を学び続けていますか。

A はい、今でも韓国語を勉強しています。今は大学で韓国語の授業をとっています。英語を勉強するよりも韓国語を勉強する方が楽しいと感じます。交流を通して知り合った子と今でも文通をしたり…大学生になってから韓国人留学生と交流する機会も増え、韓国ドラマで字幕がなくてもわかる言葉が出てくるととても嬉しいし、字幕なしでも全部理解できるようになりたいです。あとは文通している子と普通に韓国語で話したいからです。韓国に初めて行った時に、初めて1人で道に迷いました。夜遅くて人も少なく、声をかけたおじさんは日本語が分からない人だったので、あたふたしながらも必死に韓国語で訴えました。私の韓国語を理解してくれてホテルまで送ってくれたとき本当に嬉しかったし、もっと韓国語を勉強しないと！と思いました。

Q 卒業後、交流学习の経験が活かしていることがあったら教えてください。

A 交流した子とは文通やメールをして、誕生日にはプレゼントを贈ったり、お互いの国で流行っている物を送ったり …大学1年の冬休みに初めて韓国に行った時、彼女と初めて会いました。私の人生の中で、彼女との出会いは初めてだらけでした。授業での文通からの関係で、しかも外国人で…外国で知らない人と会うなんて考えたこともありませんでした。初対面で緊張し、どうしたらいいのか分かりませんでした。韓国語の勉強をしているのに、うまく話せませんでした。でも私のことを「オンニ」と呼ぶ彼女に対し、親近感が沸き、もっと韓国語で話したいと思いました。市場での値切り方や韓国料理の食べ方、韓国のプリクラなど、色々教えてくれました。交流活動での出会いが、私が今でも韓国に興味を持ち、韓国語を学んでいる理由の全てだと思います。



한일교류학습의 의의로서는 위에 쓰여진 것 외에, 교사 서로가 배움을 더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교류학습의 디자인에 교사의 협동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교사가 서로 아이디어를 내는 중에, 보다 풍부한 배움의 장이 형성되어져 갑니다. 교류상대학교의 교사와의 상의, 아이디어, 정보교환을 통해 자신에게는 없었던 관점을 알게 되거나, 새로운 수업방법을 배우거나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한일교류학습의 종류

현재 다양한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실천사례를 「대면형의 교류학습」과 「비대면형의 교류학습」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개요를 정리하겠습니다.

대면형	비대면형
① 오프라인 교류 A. 교류회를 행한다. B. 한국어 일본어 수업에 참가한다 C. 함께 과외 활동을 한다 ② 온라인 교류	①개인 단위 ②학급 단위

대면형의 교류학습

수학여행이나 연구여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자매학교 등을 방문하고, 실제로 학생과 대면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고 서로 배우는 「오프라인 교류」와 컴퓨터와 웹카메라를 사용하여 먼 거리에 있으면서도 대면하여 서로 배우는 「온라인 교류」로 나뉘집니다.

① 오프라인 교류

A. 교류회에 참가한다

학교 방문에서는 교류회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북비즈니스 고등학교와 아사이가와실업고등학교 사이에 행해지고 있는 교류에서는, 여러가지 활동을 통해 학생들 서로가 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시간 반 정도의 교류회(「우정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시간에 한국학생들은 학습중인 일본어를 사용해서 일본학생들과 자기소개를 하거나, 선물을 교환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하면서 친목을 다집니다. 일본학생이 한국의 고등학교를 방문한 이 교류시간은 모두 한국 학생이 진행하고, 게임방법도 모두 일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B. 한국어 일본어 수업에 참가하다

학교방문을 한 학생이 외국어 수업에 참가하고, 회화 상대가 되어서 교류하는 예도 있습니다. 2009 년 오사카부립阪南고등학교 (任喜久子선생님담당)에서는 자매학교 학생 3 명을 받아들여, 그 학생들이 2 학년생(수강생 10 명)과 3 학년생(수강생 5 명) 한국조선어수업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2 학년 수업에서는 한국의 학생들에게 자기소개를 하게 하고, 그 내용을 들으면 「이름, 살고 있는 곳, 좋아하는 가수」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들은 내용을 종이에 기입하는 교실활동을 하거나, 한글 명찰(스티커 사진 등도 자유롭게 붙이고)을 만들어서 교류회를 하거나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는 교류학습을 했습니다.

2 학년생보다도 학습이 진행되어 있는 3 학년생의 수업에서는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어제 몇 시에 일어나고,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가 등) 일본학생들은 한국어로, 한국학생들은 그 뜻을 일본어로 쓰는 방법으로 얼마큼 많은 내용을 말할 수 있는 가를 경쟁하는 페어 대항 발표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C. 함께 과외활동을 한다

중산외국어고등학교와 일본중앙대학스기나미고등학교에서는 여름에 합동 여름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정도 한국 혹은 일본을 방문하고, 홈스테이나 학교방문을 행하는데, 그 중에서 1 박 2 일의 합동캠프가 행해지고 있어, 소년 자연의 집(시설명) 등을 이용하여 두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레크레이션, 야외취사 등의 합동작업, 캠프파이어 등을 함께 하고, 교류를 깊이 해갑니다(2009 년의 예). 한국 학생이 일본어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어로의 의사소통이 기본으로 되고 있지만, 일본 교내에서는 한국어 인사나 간단한 회화표현이 포스터화 되어져 게시되어져 있고, 서로 함께 배우는 분위기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②온라인 교류

직접 만날 수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을 통해 교류학습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의 접속가능한 교실이 있으면, Skype(스카이프)나 MSN 메신저 등의 소프트를 활용하여 리얼 타임 교류가 가능합니다.

미야기학원 고등학교에서는 스카이프를 사용한 교류학습을 1 학기에 1~2 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를 배우는 한국 학생과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의 학생이 매회 테마에 따라 배운 일본어나 한국어를 사용하여 show & tell (사물을 보여주면서 소개)를 하거나, 상대방 학생에게 인터뷰를 하거나 하는 활동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편지나 자료의 교환이라고 하는 비대면형의 교류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고현립西宮今津고등학교에서는 「국제문화」 수업에서 텔레비전회의시스템(회선으로 원격지를 접속하여 텔레비전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사람 서로가 대면하여 회의를 실현하는 시스템)을 활용한



교류학습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학교 웹사이트와 텔레비전 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교류학습으로 게시판에는 영어와 일본어 또는 일본어와 한국어로 써 넣고, 외국어의 스킬뿐만 아니라 정보보신이나 수신 스킬학습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회의에서는 통역을 넣어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고, 학교방문 등 오프라인의 인적교류도 행하고 있습니다.



비대면형의 교류학습

파트너를 정하고 이메일이나 편지 교환을 하거나, 비디오레터를 작성하여 보내거나, 직접 만나지 않아도 가능한 교류학습의 형태가 있습니다. 「개인단위」와 「클래스단위」의 교류학습으로 분류합니다.

①개인단위

이메일이나 편지 교환을 학급 단위로도 가능하지만, 파트너를 정해서 개인단위로 상호교류를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교류 속에서 발견한 것 등을 클래스에서 보고하면, 클래스 단위에서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교류에서는 한글 입력, 가나입력 등의 기술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학습 단계에 따라 배우고 있는 언어와 모어 둘다로 쓰거나, 어느 쪽인가 한 쪽의 언어로 쓰는(「읽다」 혹은 「쓰다」의 기술로 특화한다)등 사용할 언어는 선택해도 좋을 것입니다.

②클래스단위

클래스에서 테마를 설정하고, 자료를 작성해서 서로 교환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말과 문화를 배우는 교류학습의 형태가 있습니다. 미야기학원여자고등학교에서는 이제까지 2 개의 한국의 고등학교와 테마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고, 서로 교환해 왔습니다. 자기소개가 테마일 때에는 사진과 자기소개음성 파일을 삽입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작성하거나, 학교안내가 테마일 때에는



학교의 좋아하는 장소 등을 둘러보면서 소개하는 비디오편지를 작성하거나, 명함을 만들어 보내거나, 학습단계에 따라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교환한 자료는 각각의 교실에서 교재로 사용합니다.